

# ‘주문량 만큼 제작’ 크라우드 펀딩에 패션업계 열광

선주문 후제작 방식으로 부담 줄여 약 2~3주 소요에도 MZ세대 인기 소비자 취향 파악·성공 여부 판단 작년 한해동안 2328건 펀딩 개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얼어붙은 소비에 큰 타격을 입었던 패션업계가 가을·겨울 시즌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하고 있다. ‘선주문 후제작’ 방식으로 소비자의 취향을 미리 파악하고, 재고 부담을 낮춰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크라우드 펀딩은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대중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제품을 공개 후 목표 금액 모금을 완료하면 주문량만큼 제작에 돌입하는 보상형 펀딩이 다수다. 주문량만큼 제작을 시작하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정확할 뿐만 아니라, 재고 부담이 없다. 또 투자유치는 물론 제품 개발 단계부터 추가적인 마케팅 비용 없이 홍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유통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와디즈의 성장 속도는 가파르다. 7일



이제 쿠션에 흘러도 묻혀도 고민하지 마세요! - 일상속 예술 쿠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 갈무리



은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국민 울 캐시미어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소셜 펀딩 플랫폼 ‘와디즈(WADIZ)’에서 리워드형 펀딩 내 패션·잡화 분야는 235억 원을 모집해 전년 대비 217% 성장했고, 한 해 동안 무려 2328건의 펀딩이 개설돼 오픈 건수는 149%가 늘었다. 이랜드월드의 스파오는 지난달 21일 국민상품 ‘캐시미어 블렌디드 스웨터’를 선공개하고 13일 동안 사전 이벤트를 열었다. 해당 기간 목표 대비 120%가 넘는 고객이 신청한 바 있다. 앞서 지난 상반기 세정의 웰메이드컴은 ‘와디즈’에서 ‘웰컴 티셔츠’ 펀딩을 진행해 900여 명이 참여하고 목표 금액의 5680% 이상을 달성하며 주목받았다.

중견 패션 브랜드 뿐 아니라 대기업

의 브랜드들까지 사전 펀딩방식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현재 크라우드 펀딩 업체 와디즈에서는 세정 웰메이드컴, 한세엠케이 TBJ, 이랜드 스파오, 신원 지이크, 인디에프 테이트 등의 제품에 대한 펀딩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크라우드 펀딩은 주로 패션 스타트업이나 신진 디자이너 등 초기 자본이 부족한 기업들이 소비자 펀딩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던 플랫폼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소비자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대거 이동하자 소비자와의 온라인 접점을 늘리는 방법으로서 사전 펀딩 방식이 각광받고 있다.

최근 언택트 시대 소비층의 핵심으로

떠오른 MZ세대도 공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크라우드 펀딩은 펀딩 기간을 포함해 제작까지 기본 2~3주가량이 소요돼 물건을 받아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대신 좋은 품질의 자신이 투자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MZ세대 소비자는 크라우드 펀딩의 긴 시간대기를 기꺼이 감내하는 소비 성향을 보인다.

더불어 소비자의 취향이 더욱 세분되면서 예측하기 어려웠던 트렌드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예상할 수 있으며, 성공 여부도 미리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이러한 추세에 업계는 크라우드 펀딩

이 패션업계에서 지속해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펀딩이 실패할 경우 신제품 출시가 어려워진다는 위험 부담도 존재한다. 또 단기간 집중적으로 특정 제품을 판매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프로젝트 규모를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 크라우드 펀딩이 자칫 사기의 수단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단기간 자본을 끌어모으는 것에 치중해 초기 계획만 그럴싸하게 만든 뒤 허술한 제품을 만드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성숙한 펀딩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불량제품에 대한 펀딩금 반환 정책 및 물론 투자 전 관심 제품에 정확한 정보제공이 동반되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위기를 맞은 패션업계에서 FW시즌을 맞아 크라우드 펀딩 도전에 나섰다. 회사의 오랜 기술력과 노하우가 집약된 제품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면서 “크라우드 펀딩은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윈윈(win-win)인 플랫폼인 만큼 한동안은 패션업계에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 한달 만에 전환... 外人 국내주식 1조 순매도

코스피 7810억 코스닥 2850억 유럽서 8000억 규모 순매수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다시 매도세로 돌아섰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 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66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7월 한 달 순매수를 기록하고는 다시 매도 우위로 전환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7810억원, 2850억원 규모로 팔아치웠다.

지역별로는 유럽에서 8000억원 규모로 순매수했다. 반면 중동(7000억원)과 미주(6000억원), 아시아(5000억원)에서는 순매도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스위스와 호주가 각각 2000억원씩 사들였다. 미국과 아랍에미리트는 각각 7000억원, 6000억원 규모로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규모는 589조2000억원이다.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0%다.

미국의 보유규모가 244조5000억원

〈외국인의 상장증권 순투자·보유현황〉

(단위: 십억원, 결제기준)

구분	'19년	'19년		'20년	7월	8월	보유잔액
		상반기	하반기				
주식	1,637	5,225	△3,588	△26,626	582	△1,066	589,184
채권	9,219	10,939	△1,720	25,645	2,235	997	150,976
합계	10,856	16,164	△5,308	△981	2,817	△69	740,160

\*상장주식은 장내거래 기준, 상장채권은 장내·장외거래 기준 /금감원

으로 외국인 전체의 41.5%를 차지했고 ▲유럽 176조8000억원(30.0%) ▲아시아 79조3000억원(13.5%) ▲중동 22조원(3.7%) 등의 순이다.

채권시장에서는 순투자세를 이어갔다.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채권 3조8150억원을 순매수했지만 만기상환 2조8180억원의 영향으로 총 9970억원을 순투자했다. 1월 순투자자로 전환한 이후 8개월 연속 순투자를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9000억원)와 중동(4000억원), 미주(5000억원)에서 순투자한 반면 유럽(1000억원)은 순회수에 나섰다.

종류별로는 국채(4000억원)와 통안채(4000억원), 잔존만기별로는 1~5년 미만(1조3000억원) 및 5년 이상(3000억원)에 순투자했다.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규모는 8월 말 기준 총 151조원이며, 보유 비중은 7.5%다. /안상미 기자 smahn1@



빈센이 개발 중인 수소전기선박.

## 친환경 선박 제조기업 빈센, 30억 투자유치

슈미트·인포뱅크 후속 투자 결정 전기·수소 추진 시스템 적용 선박

친환경 전기·수소 소형 선박을 제조하는 빈센은 최근 현대기술투자, 수립창업투자, 캐피탈원, 한국대안투자자산운용,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슈미트, 인포뱅크 등 7곳의 투자사로부터 신규자금 3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이 중 슈미트와 인포뱅크는 이미 8억원을 투자했던 초기 투자사로, 후속 투자를 결정했다.

빈센은 2017년 10월 설립해, 전남테크노파크 조선산업지원센터에 위치한 3년 미만의 벤처·스타트업으로, IMO(국제해사기구) 발표를 시작으로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탄소배출 규제관련 법과 정책 등의 강화로 인해 친환경 선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전기·수소 추진 시스템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선박을 개발하고 있다.

빈센은 자체 개발한 전기추진 레저보트(V-100D) 외에도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강원도에서 진행중인 규제자

유타구(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 강원 액화수소산업 특구)의 특구 사업자로 선정되어 친환경 선박의 에너지 및 추진시스템 연구개발을 진행중이다.

이 외에도 현대·기아차와 경복테크노파크, 토틸·디토닉, 영암군청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 및 기업들과 기술 제휴를 맺으며 친환경 선박의 연구개발과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현준 슈미트 대표는 “최근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주요 화두인 전동화 트렌드가 선박업계에도 가까운 미래에 촉발될 것으로 보였고, 나아가 빈센의 사업 핵심 요소인 ‘선박제조+배터리+연료전지’ 관련 국내 생태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점도 긍정적으로 보았다”며 “무엇보다도 이를 제품화시킬 수 있는 창업진들의 경험과 전문성에 대해서도 높게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장군 인포뱅크 이사는 “친환경 수소선박뿐 아니라 자율운항까지도 기업으로, 성장 요소가 많다고 평가해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양성운 기자 ysw@

## CJ, 협력사 결제금 3700억 조기지급

약 7400여곳 선지급 혜택

CJ그룹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협력업체에 약 3700억원의 결제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6개 주요 계열사의 협력업체 약 7400여곳이 선지급 혜택을 받게 되며, 정상

지급일보다 평균 1개월 가량 앞당겨 결제 대금을 받는다.

선지급 규모는 CJ제일제당이 약 1600억원, CJ대한통운약 760억원, CJENM(오쇼핑부문+E&M부문)과 올리브영이 각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CJ프레시웨이와 CJ올리브네

트웍스도 약 300억원을 선지급할 예정이다.

CJ그룹은 2015년부터 추석 명절마다 중소 협력업체의 자금 부담 해소를 돕기 위해 결제 대금을 앞당겨 지급해왔다.

CJ관계자는 “올해는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 협력사들이 자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효정 기자